

# 수공예 대중화 · 산업화 이끌 '손의 도시, 전주'

### 시, 7억9000만원 투입 생활 속 공예문화 확산 · 작가 창작 · 산업 역량 강화 · 한국공예 장인학교 운영

전주시가 수공예 작가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유통마케팅 채널을 확대하는 등 수공예 산업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온라인 수공예 체험·작품전시 등 비대면 프로그램을 병행해 수공예를 대중화하는 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7억9,000만원을 투입해 ▲생활 속 공예문화 확산 ▲창작 및 산업 역량 강화 ▲한국공예 장인학교 운영 등을 골자로 수공예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이끌기 위한 '2021 손의 도시, 전주'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먼저 시는 생활 속 공예문화 확산에 나선다.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지등과 줌치한지 응용소품을 만들어보는 '초등학교 1인 1전통공예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전주시역 무형문화재 18명의 기술, 역사, 라이브 스토리 등의 자료를 구축하는 '전통의 맥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올해 무형문화재 2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는 소식지를 4회에 걸쳐 발행해 수공예 작가, 각종 기관, 단체에 배포하여 새로운 소식 및 수공예가치 등을 알린다.

시는 또 수공예 작가들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유통마케팅 채널

을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수공예 작가들의 전시지원은 물론 상품 및 디자인 개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창작 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예정이다. 여기에 500여 개 수공예품이 등록된 온라인 쇼핑몰을 개선·운영하고, 온라인 라이브 생중계를 통한 상품판매 및 경매 프로그램 진행 등 마케팅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시는 올해 총 1억4,000만원을 들여 수공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국공예 장인학교'도 운영한다. 총 40명을 대상으로 기초·심화 2개 과정이 열린다.

이와 관련 시는 풍부한 전통문화 자산과 공예 인프라를 바탕으로 손의 가

치를 확산시키고, 수공예를 기반으로 문화와 경제를 연계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2017년부터 '손의 도시, 전주'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우수한 공예문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우수한 공예문화 콘텐츠가 시민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공예의 가치와 문화가 확산되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공예를 산업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보건소는 올해 총 3,000만원을 투입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 무료 의치(틀니)사업'을 추진한다.

## 저소득층 노인 무료 틀니 시술 지원

### 전주시보건소, 3000만원 투입해 40여명 대상 추진

전주시가 치아가 없어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틀니 시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올해 총 3,000만원을 투입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 무료 의치(틀니)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무료 의치(틀니)사업은 노인들의 구강기능 회복을 도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완전의치(틀니)와 부분의치(틀니)로 구분돼 시술비용의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추진절차는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에서 1차 검진 및 상담을 통해 틀니 시술대상 적합 여부를 심사한 뒤 대상자로 확정되면 협력 치과 의원을 방문해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다만, 7년 이내에 의료급여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틀니를 시술한 경우나 과거 보건소를 통해 무료 틀니 시술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오는 3월 말까지 전주시보건소 구강보건센터(063-281-6321~5)로 전화 문의 후 수급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대상자로 선정된 노인들에게 간편 영양죽(즉석가공식품)을 1명당 3팩씩 제공해 치아상실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노인들이 따뜻하고 든든하게 끼니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지속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구강기능을 회복시키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덕진구 반월삼거리 교통 안전성 높인다

### 9월까지 총사업비 2억8000만원 투입해 회전교차로 설치

기형적인 Y자형 교차로로 운전자들의 혼란과 사고를 야기했던 전주시 덕진구 반월삼거리가 회전교차로로 개선된다.

전주시는 행정안전부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9월까지 국비 1억4,000만원 등 총사업비 2억 8,000만원을 투입해 반월동 627-5번지

일원 반월삼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반월삼거리의 경우 Y자형의 기형적인 구조로 돼 있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음에다가 평상시 대형 트레일러 차량의 운행이 많아 구조개선이 요구됐던 곳이다.

이에 시는 차량의 감속운행을 유도

하고 자동차와 보행자의 상충 횡수를 줄일 수 있는 회전교차로로 개선해 교통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곳에는 통행우선권 정립에 필요한 교통안전 지대과 노면 표시가 설치되고, 교통섬 축소, 회전 차로 수 변경 등 기하구조 개선작업이 진행돼 회전교차로로 정비될 예정이다.

시는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주민들과의 사업설명 등을 거쳐 다음 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반월삼거리가 회전교차로로 정비되면 감속운행을 유도하고 보행자 안전성을 증대해 사고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공사기간 이 곳을 통행하는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융합형 통합돌봄' 사업 원활한 추진 위한 제1회 업무공유 간담회

### 동 주민센터 동네복지팀장 · 담당자 대상 가져... 탄탄한 통합돌봄 추진체계 갖추기 위해 담당자 간담회 월 1회 실시

전주시가 올해 확대된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실무부서 담당자들과 머리를 맞췄다.

시는 지난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동 주민센터 동네복지팀장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융합형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1회 업무공유 간담회를 가졌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소규모 인원으로 나눠 진행됐다.

시는 간담회를 통해 실무자들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에 대한 담당부서별 사업내용과 복지자원,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사업 등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에도 시는 소통하며 발전하는 탄탄한 통합돌봄 추진체계를 갖추기 위해 담당자 간담회를 월 1회 실시하고, 팀장급 간담회는 분기별로 열기로 했다. 나아가 35개 동에 통합돌봄회의체를 구축해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유관 부서가 함께하는 융합형 행정협의체를 격주로 운영하는 등 소통과 협업에 방점을 둘 예정이다.

이준배 전주시 통합돌봄과장은 "전달 중심의 교육보다는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상호교류 확대를 통해 유연하고 역동적인 사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만나고 소통할 계획"이라며 "통합돌봄 추진체계가 견고해질수록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는 지난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동 주민센터 동네복지팀장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융합형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1회 업무공유 간담회를 가졌다.

## 전주시 야호학교, 청소년과 '로봇 프로젝트' 실시

전주시 야호학교는 지난 20일 야호학교 인후공간에서 지역 청소년 10여 명과 함께 조립식 모바일 로봇의 조종 기술을 익히고 게임을 해보는 '로봇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자연스럽게 코딩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미래 직업을 미리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날 청소년들은 로봇전문가(디자이너 에보, 샘즈게임즈)의 지도로 다양한 형태의 로봇 구조에 대해 이해해 보면서 각종 센서의 구동 원리와 블록코딩

활용법 등 기초적인 알고리즘에 대해 학습했다.

아울러 시는 다음 달 열리는 야호학교 인후공간 개관식에서 모바일 로봇 조종 행사를 이벤트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시 교육청소년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겨울방학 동안 집안에서만 있어 위축된 심신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활기를 되찾음은 물론 미래 진로에 대해서도 인식해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